

티벳 탄드라의 死觀

김 용 환

(충북대학교)

《 요 약 》

이 글은 전통상례의 구조분석과 티벳 탄트라(藏傳密教)의 죽음의 의미분석에 관심을 갖고 죽음의 탐구를 향한 종교교육적 가치를 논의한다. 우리 민족의 전통상례가 칠성신앙을 중심으로 조상숭배에 가치를 둔 것이라고 한다면, 티벳 탄트라의 죽음의 의미는 열반신앙을 중심으로 극락왕생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세기말적 허무주의에 대한 도덕적 영성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전통상례문화와 티벳 탄트라에 나타난 인간의 죽음과 연관된 종교교육적 가치를 언급하고자 한다.

1. 서 론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모든 시도들은 불가피하게 죽음의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죽음의 순간을 인간이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삶에 죽음이 확실하게 직결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관한 지식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생사(生死)의 문제를 세계관으로 파악하여 종교교육적 측면에서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들은 미약한 실정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목숨을 영위하면서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는지, 죽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전통장례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와 연관을 맺고 있는 티벳 탄트라에서의 죽음의 의미분석은 종교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티벳 탄트라에서는 죽음의 순간을 통하여 인간 내면의 힘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중시한다. 따라서 티벳 탄트라에서는 죽음을 덧없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내면의 자성을 깨닫게 하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더욱이 마음을 집중적으로 다스려가는 것을 일상생활로 습관화하면 죽음에 직면하여 인간의식마저도 변형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결국 티벳 탄트라에서는 내면화의 교육을 통하여 자비, 지혜, 잠재력 등의 긍정적 요소를 최대화하고 증오, 질투, 무지 등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단을 내리고 있다.

죽음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도 이러한 종교교육적 가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테면 보다 나은 내생을 위하여나 해탈을 실현하기 위하여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보다 친숙하고 감성적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달라이 라마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의 특별한 과정에서 선과 악에 연관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죽음의 체험에서 느끼게 되는 강력한 힘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죽음의 과정을 배우는 것과 그것을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죽음은 낯선 것이며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더욱이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 나라에서는 삶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데 죽음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죽음의 현상은 삶과 무관하지 않게 일상적이며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서구 사람들은 주검을 정장시키고 아름답게 화장까지 시켜 살아있는 사람들이 꽃 속에 누운 것처럼 화려하게 단장한다. 이는 곧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한 생애의 삶으로서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전통장례에서는 주검을 감추고 격리시킨다. 산 사람과 격리시켜 생전의 모습처럼 보는 것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주검이 한국 문화에서는 공포의 대상이 된다. 단단히 주검을 결박시키고 무덤 속에 다져 두듯이 영혼이 이승에서 떠돌아 다니면 집안에 재앙이 닥칠 것으로 두려워하게 된다. 전통장례에서는 의례절차를 중시하면서 효도를 다하는 뜻에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조상숭배의 전통을 구

현하게 된다.

전통장례의례에는 무교, 불교, 유교의 세계관등이 중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를테면 씻김굿과 초혼굿은 무교의식이며, 염라대왕에 대한 인식과 저승사자를 염두에 둔 의식 및 꽃상여 마련은 불교의식이며 소렴과 대렴의 절차는 유교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죽은 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불교의식은 티벳 탄트라의 죽음에 대한 시각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티벳 탄트라에서는 한 생애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탄생과 죽음, 中有의 과정, 그리고 새로운 재생의 순환고리를 중시하게 된다. 아울러 영원히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아수라, 동물, 인간, 반신반인, 신등의 윤회적 수레를 존재적 범주로 받아 들인다. 현생의 삶이 다음 생의 삶의 과보로 상정하는 인과율을 중시하면서도 육도 윤회의 존재적 범주마저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업을 녹이고 죄를 소멸하여 육도 윤회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야말로 티벳 탄트라 세계가 추구하는 생명실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죽음의 과정은 육도 윤회의 단면이며 궁극적 실상은 될 수가 없다.

이처럼 티벳 탄트라에서는 불성(佛性)을 깨닫기 위하여 종교교육적 측면에서 죽음의 과정을 중시한다. 죽음은 삶의 종말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재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사관(死觀)은 서양의 유일신관에서 死後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전제하고 있는 관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삶의 선행과 악행이 인과적 계기로서 사후의 존재양태를 결정짓는다고 믿어지는 가운데 티벳 탄트라에서는 윤회로 부터의 해탈과 불성의 자각은 종교교육적 가치로서의 지향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죽음의 문제를 집약하고 있는 『티벳 死者의 書』는 인류문화의 중요한 보고(寶庫)가 될 뿐 아니라 죽음에 관한 심층적 이해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티벳 탄트라에 나타난 죽음의 종교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하여 불성을 깨닫기 위한 종교교육적 담론을 전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삶에 있어서 마음의 빛을 찾는 것이 소중한 것처럼 죽음에 임하여서도 마음의 빛

을 지각하는 것이 그 의미를 갖는다. 다행스럽게도 티벳 탄트라에서는 죽음의 과정에 나타난 현상을 통하여 생명의 인과율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존재론적 인식지평마저도 확대시켜주고 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전통장례의례와 티벳 탄트라의 죽음의 문제를 연관지어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집약하면 죽음현상에 대한 이해방법, 죽음과 무상에 대한 티벳 탄트라에서 제기된 죽음의 활용법, 죽음의 과정에 대한 구조적 이해, 『티벳 死者의 書』에서 제기된 죽음의 의미, 그리고 죽음, 중유(中有), 재생의 구조적 상관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방법은 종교현상학적 방법으로 죽음이라는 현상을 장례의례현상과 티벳 탄트라의 죽음현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죽음에 관한 죽음현상에 내포된 종교교육적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오늘날 인간 죽음에 대한 연구는 현재, 세기말적 현상에 대한 물음과 함께 서양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를테면 신약성경 중심의 린더 켈(Leander E. Keck)의 연구, 탈무드 중심의 로버트 골든버거(Robert Goldenberg)의 생명자각론, 부활중심의 히로시 오바야시(Hiroshi Obayashi)의 연구, 힌두교 중심의 토마스 홉킨스(Thomas J. Hopkins)의 해탈논의, 그리고 대승불교의 죽음을 다룬 프랑크 레이놀드(Frank E. Reynolds)의 죽음에 관한 담론 등이 있지만 한국의 전통장례의례와 연관된 티벳 탄트라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Ⅱ. 죽음의 이해와 활용법

석가세존의 처음과 마지막 가르침은 죽음과 무상에 대한 설법이다. 조건적으로 구성된 일체의 형상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탄생된 것은 영원하지 못하며 죽음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죽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삶의 신비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죽음의 순간 친구, 친척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내면적 힘, 살아 생전의 선행의 힘이 오히려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11세기의 티벳의 라마는 이와 같이 죽음의 과정에 대한 명상의 필요성을

말한 바 있으며 현재의 달라이 라마 역시 여닐곱번 정도 죽음의 과정을 매일 명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혹의 순간이 나타날 때, 꿈과 실제의 차이점을 구별하고 기억하는 것이야 말로 대단히 중요하다. 나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친구, 재산, 음식 등도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함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인연 가합의 형상들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면, 왜 그것이 두려운 것인가를 반문해야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이며, 죽어가는 당체는 무엇인가를 정확히 주시하라. 궁극적 실재의 차원에서는 삶과 죽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느냐?(The fourteenth Dalai Lama, Tenzin Gyatso, 1984: 181)¹⁾

이러한 관점은 죽음의 순간 경험되는 전율에 인간이 고양해야 될 자세를 자세히 암시하고 있다. 또 다른 관점은 시신의 해체과정을 명료하게 인식함이다. 시신(屍身) 옆에 앉아 형해화(形骸化)되는 과정을 주시함으로 육체는 영원한 것이 못되며, 그것을 이루고 있는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땅의 요소는 원래의 상태대로 환원됨을 관해야 된다. 또 다른 관점은 주검의 해체과정을 명료하게 가시화함으로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다. 달라이 라마의 설명을 들어보자.

매일 매일의 명상의 과정에서 나는 죽음의 과정을 주시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모사 현상은 미묘한 의식의 층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 이 세가지 의식의 층은 거친 의식, 미묘한 의식, 아주 미묘한 의식의 세 가지 층으로 구별된다. 중유의 상태에서는 아주 미묘한 의식의 층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죽음의 과정을 배울 필요가 있다(The fourteenth Dalai Lama, Tenzin Gyatso, 1984: 169)²⁾.

우리가 죽음에 임하게 되었을 때, 깊은 무의식의 층을 경험하게 된다. 마음의 요가를 통하여 이러한 깊은 무의식의 층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죽음에 이르러 마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1) 특히 현재의 14대 달라이 라마는 명상의 과정에서 죽음과 무상을 관찰하게 되면, 죽음의 순간 공포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죽음에 대한 친숙감을 발견할 있다고 말한다.

2) 같은 책, 169. 대부분의 경우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삶 중심의 명상법이 강조되고 있음에 유의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다섯 가지 우주원소들이 차례 차례로 해체되어 간다. 먼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그리고 불의 요소, 마침내는 공기의 요소가 해체되어 간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의식의 미묘한 층이 육체에 남아 있는 한 아직 죽은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 임맥과 독맥을 따라 의식의 미묘한 층이 분해될 때 비로소 가슴중심의 맥관을 통하여 죽음의 대광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Rinbochay and Hopkins, 1979: 38-48).³⁾ 일반적으로는 사후이 경과할 때 비로소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이러한 경험이 늦게 일어날 수도 있다. 평소의 명상의 경험이 점진적으로 확장된 경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영혼의 자유를 실현하거나 불성을 깨닫는다. 따라서 죽음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혼의 세계를 완성하고 궁극의 실상을 깨닫는 적극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일상적인 죽음의 경우에는 다른 생명 혼의 차원을 전이하는 방법에 의하여 혼의 변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극락왕생, 또는 해탈의 차원까지도 죽음의 과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새로운 변형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죽음현상의 이해에는 죽음자체에 대한 분석적 방법이 중시되면서 동시에 죽음의 종교현상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종교현상학적 방법의 활용될 필요가 있다.

Ⅲ. 전통적인 사례

죽음은 이승에서 상주와 주검을 만들고, 저승에는 초혼을 통해 영혼과 저승사자를 관념적으로 형성한다. 현실적인 죽음은 감각으로 확인되지만, 저승적인 것은 영혼의 문제로서 초혼(招魂), 수시(收屍), 발상(發喪)의 삼단계로 이루어진다(임재해, 1990: 22-23).⁴⁾

『예서』에서는 초혼을 고복(梟復)이라고 하는 데, 저승사자가 강제로 혼을 데리고 간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임종이 확인되고 곡소리가 나면 주검을 대면하지 않은 사람이 죽은 이가 평소 입던 두루마기나 적삼을 들고 마당에 나가서 마루를

3) 슈슌나로 에너지를 철회함.

4) 여기서는 상주, 주검, 영혼을 세 축으로 의례를 논한다.

향해 옷을 흔들며 생전의 관직명이나 이름을 부르며, 복을 세 번 외친다. 원래 지붕위에서 행하던 것이었지만 마당에서 북향 또는 지붕을 향해 고복을 외치기도 한다.

고복은 주검을 떠나는 영혼을 불러다가 망자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한 의례이기 때문에 초혼이라고 지칭되며, 죽음이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 초상이 났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도 한다. 초혼에 이어 밥 세 그릇, 반찬, 포, 짚신 세 켤레 등을 상이나 명석에 차려놓고 상주들이 재배한 뒤에 곡을 하게 되는 데, 이 때 차리는 상을 사자상(使者床)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례는 영육분리의 관념, 죽음을 관장하는 염라대왕이 저승에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저승 사자들을 잘 대접하면 죽은 이의 저승길을 편히 대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영혼을 데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 밥과 반찬은 요기로, 짚신은 먼길에 대한 대비로, 돈은 망자의 혼을 당부하는 의미를 반영하여 사자상을 차리게 된다.

『예서』에서는 죽은 이의 생환을 포기하는 뜻에서 죽은 이의 몸을 주검으로서 다루는 절차를 수시라고 말한다. 이 경우 남자상주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 발에 흰 옷을 입는다. 아버지 상에는 왼쪽 소매를, 어머니 상에는 오른쪽 소매를 꿰지 않고 입게 되는 데 경황이 없음을 알리는 징표이면서 효를 다하지 못했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망자의 아들은 사흘, 다른 혈연은 세 끼, 두 끼등을 굶게 되는 데 이도 조상숭배의 극진함을 표상하는 것이다.

주검의 머리에는 옷을 접어소 피고 어깨와 손, 정강이 무릎, 엄지 발가락을 차례로 묶게 되는 데 흠이불을 얼굴까지 덮어서 살아 있는 자와 구별을 짓는다. 그리고 향상을 차리는 데, 이에는 촛불, 포, 술잔, 향로등을 놓고 분향하며 조객을 맞이할 차비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상주가 성복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고 분향하면서 곡만 하게 된다.

수시 이후의 절차는 상주가 머리를 풀고 곡을 하게 되는 데 이를 발상(發喪)이라고 한다, 속굉(屬絃:숨으로 죽음을 확인함)의 경우가 자연발생적 곡을 토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발상시의 곡은 애고 애고, 아이고 아이고등으로 의례적인 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상례의 의미를 죽은 자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티벳 탄트라의 죽음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IV. 티벳 탄트라에서의 죽음의 의미

불교에서는 중유의 상태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티벳탄트라에서는 바르도라고 명시한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해탈은 중유상태를 통하여 완성된다’고 말한다.⁵⁾ 20세기까지 『티벳 사자의 서』는 죽음에 대한 이해의 차원으로 활용되었을 뿐 해탈의 지침서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1980년 이후부터 임사 체험에 대한 여러 증언을 통하여 『티벳 사자의 서』는 죽음 이상의 의미차원에서 이해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죽음의 순간, 중유(존재체험의 시기), 그리고 환생의 과정에 대한 언급이 그러하다. 각각의 단계에서 경험되는 차원은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에 대해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경우의 죽음에 대한 체험은 본능적 색깔과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Lama Lodro, 1975: 37). 일찍이 불교의 세계관에 의하면 사물의 공성(空性)이 강조되고 있지만, 경험적 실재를 진여실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경계상이 물들게 된다. 이러한 관계로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의 오음의 현상을 영원한 자아로 착각하게 된다. 분석적 입장에서 이들의 실상을 관찰하게 되면, 이들 구성요소들의 비실재성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잘못된 습관에 따라 전도된 망상을 실재로 인식하는 습성이 남아 있게 된다. 분노와 탐욕을 실재로 느끼기 때문에 중유의 순간에 일어난 일들도 실재로 착각하여 업보를 가중시키게 된다. 이러한 전도망상의 힘이 대단히 강렬하기에 망자에게 일어나는 중유기간동안의 존재체험을 명확하게 보지 못함에 따라 육도를 윤회하는 차원으로 환원된다.

첫 단계의 죽음의 순간(치카이 바르도)에는 광명의 미묘한 의식층을 보게 된다.

5) 20세기 초까지 이 책은 티벳인들의 죽음과 재생의 세계관을 다룬 책으로 알려져 있다가 라마 카지 다와삼들이 번역하고 에반스 웬츠가 편집한 파드마 삼바바의 『티벳 사자의 서』가 소개된 뒤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를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칼 융은 모든 인간 의식의 원형으로서의 이 책의 가치를 평가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의식재통합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임사체험을 부각시키며 무디와 사봄 등이 이 책의 가치를 강조하기에 이른다(R. Moody, 1975; M. Sabom, 1964 참조).

죽음의 순간에 마음은 모든 조잡한 형상의 차원 너머서의 불멸의 빛을 직감하게 된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불성의 순수마음을 지각하게 되면, 마음은 불심(佛心)과 계합하게 되는 것이다(W. Y. Evans-Wentz, trans. 류시화 역, 1999: 240-241).

법신에서 나타나는 광명체를 의식적으로 지각하기 위해서 망자 주위의 사람은 세 번 또는 일곱 번 이러한 경구를 염송해 줄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⁶⁾ 이러한 실상을 여실하게 관하는 자에게 자유의 실현은 가능해진다.

두번째 단계인 중유 시기(초에니 바르도)에서는 대부분 미묘한 의식이 몸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죽음과 환생의 중간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망자는 친척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자신이 죽지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못한다. 이러한 당혹감은 망자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한다.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지도 않고 또 그림자도 남기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이 비로소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마음의 몸’을 통하여 그 어떠한 곳으로도 침투해 들어갈 수 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비록 마음이라는 의식층을 유지하고 있지만 육신과 피는 더 이상 없다. 어떠한 소리, 형상, 빛들도 자신에게 해로움을 끼칠 수가 없다. 그것들은 자신의 투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W. Y. Evans-Wentz, trans. 류시화 역, 1999: 103-104).

망자는 이러한 환영을 통하여 다양한 부처의 모습과 형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 기간의 처음 여섯 날까지는 서로 다른 빛깔의 형상으로 된 평화로운 부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각각의 상이한 부처는 지혜의 고유성에 따라 상이한 광선을 방사하면서 여섯 차원의 다른 영역의 빛깔들을 볼 수 있게 한다. 나쁜 과보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망자들은 해탈을 방해하는 독소를 스스로 분출하기 때문에 투명한 부처의 광선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약한 빛 속으로 숨어

6) 여기서 말하는 법신은 불생불멸의 몸을 말하는 것으로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의 몸은 법신, 보신, 화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법신은 흔히 무한한 대양에 비유되고, 보신은 대양에서 파생하는 안개구름과 무지개에 비유되며, 화신은 구름에서 비를 뿌리는 형상으로 말한다. 역사적인 인물, 석가모니 붓다는 화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법신은 여러 형태로 모습을 나눌 수 있는 데 이는 곧 모든 형상의 근본자리가 법신이다.

들어 가게 된다,

이를테면 첫째 날, 망자는 비로자나불과 합체존을 이루는 영성체로부터 방사되는 밝고 명료한 빛의 영향을 받게 되어 존재체험을 이룩하게 된다. 이 경우에 엄청난 빛의 방사력에 위압감을 느끼고 스스로 은신처를 찾게 된다. 이와 같이 유연하고 부드러운 빛 속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는 데 이를 신계(神界)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오일 동안 다른 부처를 보게 되는 데, 여섯 날 째는 다섯 부처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날에는 마흔 두 명의 신성한 존재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대할 때 이들이 각자의 마음에서 투영된 것이라는 것을 망자가 의식하게 되면 곧 해탈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처의 자비로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더라도 해탈은 가능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음신 으로서 다시 방황하게 된다. 칠일 째는 평화로운 모습이나 분노의 모습이 아닌 부처를 만나게 되는 데, 이들 또한 자신의 마음의 표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또 한번의 죽음을 맞게 되고 중음신 으로서 방황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⁷⁾

그 다음의 8일에서 12일 까지 분노의 형상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헤루카와 부처의 합체존을 응시하게 된다. 나홀동안 무시무시한 모습과 직면하더라도 이들 또한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라는 점을 의식하게 되면 해탈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나홀동안 무려 오십 여덟분의 분노형상과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형상에 공포를 느껴 도피처를 찾게 되면 환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새로운 몸을 받는 환생의 시기(시드파 바르도)에는 과거 업식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정적 업보가 강하면 지진, 홍수, 폭풍 등의 마왕의 군대와 만나게 된다. 이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소의 영향으로 해탈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할 것이다. 선행의 업식은 지복감을 수반하게 되지만 이들

7) 이러한 죽음을 흔히 작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데, 바르도 체험에서 7일 째 마다 이러한 죽음이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이 호흡을 멈춘 후에도 의식 차원에서는 7번의 작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티벳 탄트라에서는 49재의 의미가 중시되며, 전통상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감정에 이끌리거나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고 부동심을 유지할 수 있으면 죽음의 마왕과의 직면에 따른 부정적 상황이라도 결코 두려움을 수반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 실제로 육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공포가 있을 뿐 실제고통은 수반되지 아니한다.

이제 윤회의 여섯영역을 상징하는 빛에 의해 마음의 몸이 이끌리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환생은 이루어지게 된다. 환생은 극락왕생의 초자연적인 탄생의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고통을 본질로 하는 욕도윤회의 환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계의 환생에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영역 보다 부처의 법음에 의한 깨달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F.Freemate, trans, 1975: 76). 인간계 환생의 경우 아버지에 이끌리면 여성으로 어머니에 이끌리면 남성으로 몸을 받게 된다.⁸⁾ 이러한 윤회는 하루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길게는 49일 동안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시간은 마음의 훈련, 업식, 재생의 공간등에 의해 결정된다.

V. 죽음의 종교교육적 가치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죽음의 종교교육적 가치를 집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이는 곧 삶과 연결된 죽음의 통과제의적 가치, 자성깨침의 적극적 기회로서의 죽음의 가치, 죽음을 통한 인간존엄성 발견의 가치이다.

첫째, 통과제의적 가치는 전통상례에서의 초혼-수시-발상의 삼분법의 구조, 『티벳 사자의 서』에서의 죽음-중유-환생의 삼분법의 구조는 종교현상으로서의 일상성과 분리-전이-일상성과 재통합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날 망자가 저 세상을 간후 다시 극락왕생 또는 환생으로 복귀하게 됨을 말한다. 물론 상주를 중심으로 보면, 상주가 의복을 갖추어 입는 성복의례, 상주와 망혼이 연대감을 이루는 상중(喪中)의 시기, 망자를 묻고 상주가 일상성으로 복귀하는 재통합의 시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죽음의 허무성에 대한 이성적 판단은 마침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환생의 종교적 열망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8) 이러한 입장은 프로이트의 외디푸스-이렉트라 콤플렉스의 설명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준다.

둘째, 자성깨침의 적극적 의미로서 죽음의 종교적 가치를 말할 수 있다. 티벳 탄트라에서는 자성을 깨닫는 것에 목적을 두고 죽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 자성에 대한 깨침은 삼겹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한 생애에 걸쳐서도 가능하겠지만,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 그 가능성은 더욱 확장되며 내면의 빛을 깨닫는 정도 또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티벳 탄트라라는 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죽음의 과정에 인간이 친숙할 것임을 한결같이 강조한다.

특히 『티벳 사자의 서』에 자세히 기록된 죽음, 중유, 환생의 삼 단계는 삶과 죽음 그리고 환생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통일체적 인격함양의 가치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삶의 궤적에 따라 자비로운 모습 또는 분노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반영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모습을 생생하게 현상적으로 기술하면서 동시에 이들 모습이 자신 마음의 업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죽음의 순간 이러한 이치를 듣게 되면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허망한 종말 대신에 자유실현의 적극적 의미로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죽음은 생명의 존엄성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통상례에서 듣게 되는 사설로서 저승길이 멀다드니 대문 밖이 저승일세를 통해, 우리는 죽음의 현실성을 경험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자님아 사자님아 내말 잠깐 들어주소, 시장한테 점심하고 신발이나 고쳐신고, 쉬어가자 애절한들 들은 체도 아니 하고에서 생명의 존엄성이 은근히 강조되면서 가능한 사자가 영혼을 데려가지 말 것을 관념적으로 회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죽음의 의미를 집약해 놓은 『티벳 사자의 서』를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죽음의 성찰이 가능하고, 대자유를 실현하는 길마저도 열려 있다고 말한다. 비록 해탈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교교육적 차원에서 죽음을 잘 이해함으로써 극락왕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능한 자궁을 통한 환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애착과 혐오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흰 빛을 따라가면 천상계, 노란 빛을 따라가면 인간계의 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인간이 죽음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의식체의 탈바꿈이 가능한 법이며 생명의 소중한

을 일깨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의 측면에서 죽음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피하고 삶의 가치를 죽음을 통하여 재발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과정을 바로 이해함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통일적 안목을 갖게 되고 죽음이 함축하는 역설적 진리를 깨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이다. 아울러 이러한 인식지평의 확대는 인간의 영성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현대사회의 허무주의와 세기말적 병폐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종교문화에 대한 심층적 인식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임재해(1990). 전통상례. 서울: 대원사.

The fourteenth Dalai Lama(1984). Tenzin Gyatso, *Kindness, Clarity and Insight*, trans. And ed. Jeffery Hopkins. Ithaca, N. Y. : Snow Lion Press.

Rinbochay and Hopkins(1979). *Death, Intermediate State, and Rebirth*. Snow Lion.

R. Moody(1975). *Life after Death*. New York: Bantam Booka.

M. Sabom(1964). *Recollections of Death*. New York: University Books.

Lama Lodro(1975). *Bardo Teachings: The Tibetan Book of the Dead*. Boulder, Colo.: Shambala.

W. Y. Evans-Wentz(1927). trans. *The Tibetan Book of the Dead*. London: Oxford Univ. Press. 파드마 삼바바 저. 류시화 역(1999). 티벳 사자의 서. 서울: 정신세계사.

F. Freemate(1975). trans. *The Tubetan book of the dead*(boulder). Colo.: Shambala.